

한-케냐 인프라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출처:trading economics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	129	2025.9월
인플레이션(%)	4.5	3.8	2025.8월
CPI(points)	146	146	2025.7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 케냐 2024/25 회계연도 세수, 목표치 대비 KES 670억 부족¹⁾

- 케냐의 2024/25 회계연도 총 세수는 KES 2.92조를 기록하며, 주요 세원의 부진으로 인해 목표치인 KES 2.99조에 미달함.
- 세수 부족분은 주로 일반 세수에서 KES 760억의 격차가 발생한 데 기인했으며, 전년 12.1% 대비 5.7%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임.
-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VAT)는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으나,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KES 320억과 KES 43억 목표에 미달함.
- 부처 자체수입(Ministerial Appropriation-in-Aid)이 격차를 일부 완화했으나, 재정 압박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재정적자는 GDP의 5.8%에 해당하는 KES 1.01조로 집계되었고 주로 국내 차입을 통해 충당됨.

○ 케냐 해외투자 37% 급증, 인접국 중심 확대²⁾

- 케냐의 해외투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며, 이는 케냐 기업들의 역내 확장을 반영함.

1)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8/ordinary-revenue-shortfall-drags-kenyas-2024-25-collections-below-target/>
 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companies/uganda-ethiopia-tanzania-top-as-kenya-investments-abroad-up-5166164>

- 주요 투자 대상국은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로, 케냐 해외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투자 분야는 주로 은행업, 제조업, 소매업임.
- 이러한 해외투자 급증은 케냐의 동아프리카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입증함.
- 해당 추세는 역내 통합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의 잠재적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 케냐 일반 세입의 절반가량, 부채 상환 및 연금에 소진... 개발지출 압박³⁾

- 케냐 일반 세입의 약 48%가 부채 상환 및 연금 의무에 사용되어 정부의 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
-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개발지출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재원이 점차 의무적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데 집중되고 있음.
- 금융 분석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케냐의 핵심 인프라, 사회 프로그램, 장기적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함.
-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조정, 세입 확충, 엄격한 공공예산 운용을 통해 개발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재무부, KES 510억 유로본드·SGR 상환 위해 신규 차입 검토⁴⁾

- 케냐 재무부는 9월 만기 도래 예정인 KES 510억 규모의 대출 상환을 위해 신규 차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임박한 유동성 압박을 부각시킴.
- 주요 상환 의무에는 유로본드(Eurobond)와 중국 수출입은행(Exim Bank of China)과 연계된 표준궤 철도(SGR) 프로젝트 관련 상환이 포함되어 있어 차환 필요성을 높이고 있음.
- 이러한 차입 추진은 케냐의 부채 차환 및 대외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정 지속가능성과 차입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차환 수요는 케냐의 부채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특히 단기 만기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차입 비용이 급등하거나 국내 금융시장

3) <https://www.youtube.com/watch?v=oTa6XGCM54A>

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seeks-new-debt-to-clear-sh51bn-loan-due-next-month-5167370>

과부하 없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함.

○ 케냐 - UAE 경제 동맹: CEPA, 교역 급증 견인하며 나이로비를 동아프리카 관문으로 부상⁵⁾

- 케냐와 아랍에미리트(UAE)의 협력은 역내 경제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2023년 비석유(non-oil) 교역은 31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6.4% 증가함.
- 2025년 1월 체결된 역사적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무역 장벽 완화, 투자 촉진, ICT·재생에너지·관광·은행·인프라 분야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함.
- 이번 협정은 케냐가 지닌 전략적 강점인 지리적 위치, 인프라, 숙련된 인력, 민주적 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UAE 투자자에게 아프리카 시장 접근, 물류 전문성, 금융 자원을 제공함.
- 궁극적으로 UAE - 케냐 동맹은 나이로비를 동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 자리매김시키며,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역내 리더십 강화를 약속함.

○ 재무부, 케냐 파이프라인 민영화 우려 속 예산 삭감 검토⁶⁾

- 재무부는 세수 부족과 케냐 송유관공사(Kenya Pipeline Company) 민영화 제안과 관련한 투자자 불안으로 인해 대규모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음.
- 파이프라인 매각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정부의 세수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긴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부문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감축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민영화 목표와 재정 안정성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부각함.

○ 케냐, 3,05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무역적자 심화⁷⁾

5) <https://www.the-star.co.ke/news/big-read/2025-08-27-kenya-uae-ties>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mulls-budget-cuts-amid-kenya-pipeline-sale-jitters-5175544>

- 케냐는 지난 1년간 USD 3,050억 상당의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양국 간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수입 규모는 케냐의 대중국 수출을 크게 상회하며, 양자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해당 추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음.
-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격차 확대와 함께 약 USD 98억에 달하는 케냐의 대중국 부채가 외부 경제 압박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이 상황은 케냐의 무역 다변화 전략, 저가 중국산 제품 의존도, 그리고 국내 제조업 및 재정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켰음.

○ 식품·교통비 급등으로 케냐 가계에 물가상승 압박⁸⁾

- 케냐의 물가상승률은 2025년 8월 4.5%로, 7월의 4.1%에서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식료품, 비알코올 음료, 교통비 인상에 따른 것.
- 이 세 가지 부문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체 가중치의 57% 이상을 차지하였음.
- 전기 및 휘발유 가격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임은 급등했으며, 특히 몸바사-나이로비 간 버스 요금은 KES 1,300에서 KES 1,500으로 상승했음.
- 기타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일부 의류, 가정용품, 교육 항목은 하락한 반면, 다른 품목들은 소폭 상승했음.

② PPP 관련 동향

○ Africa PPP 2025: 인프라 자금 격차 해소 위해 USD 4조 규모의 국내 자본 동원 추진⁹⁾

- Africa PPP 2025가 2025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미비아 빈트 후크에서 개최되며, 아프리카 내 4조 달러 규모의 국내 기관투자

7)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china-floods-kenya-with-sh305-billion-goods-5175566>

8)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8330/kenyans-feel-the-pinch-of-higher-prices-as-august-inflation-ticks-up-to-45pc>

9) <https://fox40.com/business/press-releases/ein-presswire/841442586/africa-ppp-2025-to-highlight-4-trillion-infrastructure-investment-opportunities/>

자본(domestic institutional capital)을 인프라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

- 이번 정상회의는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격차 문제를 논의하며, 이는 부채 불안정, 해외직접투자(FDI) 부진, 공적개발원조(ODA) 감소 등으로 심화되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PPP(민관협력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에너지, 교통, 수자원, ICT, 주택, 산업 인프라 분야의 투자 기회를 소개할 예정임.
- 본 행사는 최고경영진, 정책결정자, 금융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회의, 프로젝트 발표, 교육, 네트워킹을 통해 민간 주도, 기후 회복력(climate-resilient) 기반, 초국경 인프라 개발을 촉진함.

○ 케냐 - 아가칸, 나이로비 강 복원 및 문화유산 프로젝트 위한 역사적 PPP 협정 체결¹⁰⁾

- 케냐 정부는 개발, 환경보전, 문화유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스마일리 이마맷(Ismaili Imamat)과 두 건의 역사적 협정을 체결함.
- 첫 번째 협정은 이마맷을 케냐와 국제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 공식 인정하며, 두 번째 협정은 일반 협력의 틀을 마련함.
-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프로젝트에는 나이로비 강 복원 프로그램, 시티 파크 재생, 케냐 국립박물관 개발이 포함되며, 현재까지 4만 명의 케냐인이 복원 작업에 참여하였음.
- 루토(Ruto)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보건, 교육, 개발 분야에서 수십 년 간 기여해온 아가칸(Aga Khan)의 업적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케냐의 국가 변혁 의제와 부합한다고 강조함.

○ 전자조달(e-GP) 시스템 오류로 KES 2,500억 규모 정부사업 중단¹¹⁾

- 새로운 전자정부조달(e-GP)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예산 문서 업로드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최소 KES 2,500억 규모의 국가 및 지방정부

10) <https://www.the-star.co.ke/news/2025-08-26-kenya-to-work-with-aga-khan-on-nairobi-river-regeneration>

1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government-projects-stuck-as-trouble-over-new-procurement-system-5171156>

사업이 중단되었음.

- 공공조달규제청(PPRA)은 신규 시스템으로의 완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미종결된 모든 입찰 및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명령했음.
- 이번 차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기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산을 먼저 업로드해야 한다는 e-GP 요건으로 인해 다수 기관이 필수 조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및 서비스 제공의 병목 현상이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에티오피아-당고테 식량안보·산업화 촉진 위한 USD 25억 비료 PPP 체결¹²⁾

- 에티오피아는 나이지리아의 당고테 그룹(Dangote Group)과 25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여 소말리주에 연간 300만 톤을 생산할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로 함.
- 이번 프로젝트에는 칼럽(Calub)과 힐랄라(Hilala) 가스전을 활용하기 위한 장기간 지연됐던 가스 파이프라인 복원 사업도 포함되며, 2029년경 가동을 목표로 함.
- 당고테는 에티오피아에서의 성공적인 시멘트 사업을 기반으로 60%의 지분을 확보하며, 아프리카 비료 산업에서 모로코 OCP와 경쟁할 강력한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이 공장은 에티오피아의 식량 안보 강화, 비료 수입 감소, 그리고 역내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산업 자립 촉진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통행료 갈등으로 마우 서밋 도로 확장사업 지연¹³⁾

- 마우 서밋(Mau Summit)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통행료 부과 계획이 운전자 및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프로젝트 완공이 지연되고 있음.

12) <https://www.constructionkenya.com/12665/ethiopia-dangote-fertiliser-plant/>

13)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7748/why-tolling-of-mau-summit-road-is-still-a-thorn-on-its-expansion#google_vignette

- 주민과 기업들은 통행료 부과가 교통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부 케냐 지역의 교역과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정부는 KES 170억 규모의 투자비 회수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세금 재원 활용 등 대안 마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이번 교착 상태는 통행료 기반 인프라 재원 조달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중 수용성이 낮은 케냐의 근본적 과제를 드러냄.

○ **정부, 전력·주택·도로 분야에 KES 30억 투자... 와지르(Wajir) 경제 변혁 추진¹⁴⁾**

- 키투레 킨디키(Kithure Kindiki) 부통령은 정부가 와지르에서 1만 8천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최종연계사업'에 KES 30억을 배정했다고 발표함.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750km 규모의 이시올로 - 와지르 - 만데라 (Isiolo - Wajir - Mandera) 도로, 하이브리드 태양광 - 디젤 발전소, 직업 훈련학교(TVET), 대학, 의과대학 캠퍼스 내 신규 주택 건설이 포함됨.
- 정부는 교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개 현대식 시장을 건설하고, 여성 및 청년 주도의 협동조합(SACCO)을 지원하여 소규모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킨디키 부통령은 북부 케냐에서의 국가 신분증 발급 차별 심사가 폐지되었음을 확인하며, 주민들의 동등한 대우와 시민권 보장을 강조함.

○ **정부, 경제성장 견인 위한 수십억 규모 연안 인프라 사업 가속화¹⁵⁾**

- 정부성과관리단(Government Delivery Unit, GDU)은 민생 중심 경제변혁 아젠다(BETA)의 일환으로 연안 지역에서 수십억 실링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에는 칼레(Kwale), 몸바사(Mombasa), 킬리피(Kilifi) 카운티 전역의 도로, 교량, 댐, 공항, 산업단지 건설이 포함되며,

14) <https://www.kenyanews.go.ke/govt-scales-up-roads-power-and-housing-in-wajir/>

15) <https://www.kenyanews.go.ke/government-push-for-public-infrastructure-projects/>

이는 교통망 개선, 교역·관광 촉진, 상수도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GDU 주도의 현장 점검을 통해 품질 기준 준수, 지역사회 참여, 적기 완공이 보장되고 있으며, 지연 및 비용 초과와 같은 과제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농업, 수산업, 관광 등 주요 부문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음.

○ 메타와 사파리콤, 케냐-오만 디지털 연결 강화를 위한 29억 달러 규모 해저 케이블 사업 착수¹⁶⁾

- 케냐의 사파리콤(Safaricom)은 메타(Meta)와 협력하여 오만과 몸바사를 연결하는 29억 달러 규모의 해저 광케이블 사업인 '다라자 프로젝트(Daraja Project)'를 확보하였음.
- 해당 시스템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기존 케이블보다 훨씬 많은 24개 광섬유 페어(fibre pairs)를 배치해 인터넷 용량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4G·5G 및 광대역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 사파리콤은 나얌리 해변(Nyali Beach)에 케이블을 접안할 수 있도록 케냐 환경관리청(NEMA) 승인을 받았으며, 탄자니아 해역까지 연장될 계획임.
- 이번 프로젝트는 몸바사를 역내 핵심 디지털 허브로 부상시키는 동시에, 과거 고비용을 초래한 인터넷 장애에 대비한 이중화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됨.

○ 케냐 2027 AFCON 유치·인재 육성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¹⁷⁾

- 루토 대통령 행정부는 '민생 중심 경제변혁 아젠다(BETA)'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47개 전 카운티에 걸쳐 스포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나야요(Nyayo) 및 카사라니(Kasarani) 경기장 개보수와 탈란타 시티 스포츠 스타디움(Talanta City Sports Stadium) 건설을 통해 케냐는 2027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AFCON) 및 기타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16)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09/meta-safaricom-seal-2-9bn-subsea-cable-deal-to-link-oman-and-mombasa/>

17)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03-government-develops-sports-infrastructure-to-nurture-talent>

확보하고 있음.

- 정부는 37개의 스포츠 아카데미와 다수의 현대식 스타디움을 각 카운티에 건설하여 기회의 분산화를 도모하고, 대회 기간 동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임.
-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투자가 청년들의 재능 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뿐 아니라 국가 전역의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연료부담금 활용해 KES 1,750억 확보... 전국 580개 도로 사업 재개¹⁸⁾

- 정부는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의 일부를 유동화(securitisation)하여 KES 1,750억을 조달, 전국적으로 중단되었던 580개 이상의 도로 사업을 재개하였음.
- 이번 자금 조달로 시공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체불금을 해소하여 신뢰가 회복되고, 케냐국가고속도로청(KeNHA), 도시도로청(KURA), 케냐농촌도로청(KeRRA) 등의 기관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됨.
- 케놀 - 사가나 - 마르와(Kenol-Sagana-Marwa) 구간 및 니에리 - 오타야 - 칸게마(B23, Nyeri - Othaya - Kangema) 등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고속도로, 도심, 농촌 연결도로 전반에서 가시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
- 본 이니셔티브는 시공사의 경영 지속, 고용 유지, 농민·상인·지역사회의 교통망 개선 등 직접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600억 달러 규모 가스 기반 초고속 철도 자금 조달 및 OBC 승인으로 사업 추진¹⁹⁾

- 라고스, 아부자, 카노, 포트하코트를 연결하는 총연장 4,000km의 나이지리아 600억 달러 규모 초고속 철도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 증빙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불안정한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는 대신, 본 사업은 전적으로 천연가스로 구동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전용

18) <https://www.the-star.co.ke/news/2025-09-02-fuel-levy-unlocks-over-580-road-projects>

19)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proposed-nigeria-bullet-train-to-be-powered-by-gas-5177688>

가스 인프라 개발이 요구됨.

- 나이지리아 인프라 민관협력 규제위원회(Infrastructure Concession Regulatory Commission)가 사업 개요안(OBC)을 승인했으며, De-Sadal Nigeria Ltd(나이지리아 기업)와 중국 Liancai Petroleum Investment Holdings를 포함한 컨소시엄은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을 추진 중임.
- 1단계 1,600km 구간은 약 36개월 내 완공될 예정이며, 일부 구간은 조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통해 경제활동, 관광, 부동산 가치 및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획기적인 상승이 기대됨.

④ 정치 동향

○ 루토 대통령, 주요 법안 처리 과정서 국회 영향력 행사 의혹²⁰⁾

- 루토(Ruto) 대통령이 국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부담금(Housing Levy)과 재정법(Finance Act) 등 논란이 큰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비판론자들은 행정부의 압력이 공청회와 절차적 심사를 우회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함.
- 해당 법안들은 헌법 위반 소송에 직면했으며, 법원은 국회의 심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 중임.
- 이번 사안은 행정부 권한 남용과 입법부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음.

○ 루토 행정부, 워싱턴 이미지 제고 위해 트럼프 연계 로비스트에 KES 3억 2,500만 지출²¹⁾

- 윌리엄 루토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워싱턴에서 케냐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미 대사를 지낸 카를로스 트루히요(Carlos Trujillo)가 이끄는 로비 업체 Continental Strategy LLC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 세금 KES 3억 2,500만 이상을 투입한 사실이 드러남.

20)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7892/from-housing-to-finance-laws-president-rutos-hand-in-parliamentary-misdeeds/#google_vignette

21)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7890/revealed-how-ruto-is-splashing-millions-on-us-lobbyists-to-save-face>

- 해당 계약은 다수의 케냐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비용 대외 공공외교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비판론자들은 이번 지출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과도한 행보로, 국내 위기 해결보다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조치는 공공서비스와 같은 필수 부문보다 대외 이미지 관리에 공공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거버넌스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의회·사법부, 행정부 권한 남용에 맞선 이례적 제도적 연대²²⁾

- 의회와 사법부가 행정부의 간섭에 저항하며 헌법적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이례적인 제도적 연대를 보임.
- 모제스 웨탕굴라(Moses Wetang'ula) 국회의장은 의회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며, 사법부의 가처분 명령 없이 입법 기능을 지속할 권한을 주장하고, 협력 증진을 위해 사법부와 대화를 요청함.
- 이러한 태도는 행정부 권한 남용에 따른 긴장 고조를 반영하며, 의회는 사법부의 개입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응하고, 사법부는 행정부 압력에 맞서 헌법상 역할을 견지하고 있음.
- 정치 분석가들과 시민사회 기관들은 이번 사안을 케냐 권력 분립의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하며, 두 기관이 행정부 지배적 영향력에 맞서 각자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캅가타, 부패 및 지연된 자원 배분을 지방 분권 주요 위협으로 지적²³⁾

- 무랑가(Murang'a) 주지사 이룽구 캅가타(Irungu Kang'ata)는 지방분권을 케냐의 최대의 헌정적 성취로 평가하며, 포용성 강화와 민족 지배구조 해체에 기여했다고 강조함.
- 그는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 지연이 카운티 정부를 약화시키고, 프로젝트 중단과 계약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함.
- 캅가타 주지사는 부패가 지방단위로 분산되어 카운티 차원에서 깊이

22) <https://nation.africa/kenya/news/politics/parliament-judiciary-close-ranks-in-rare-unity-against-executive--5168866>

23)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28291/kangata-corruption-delayed-funds-still-a-threat-to-devolution>

뿌리내리고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함.

- 그는 세입 징수 및 급여 시스템 자동화를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디지털화를 통해 세입 증대와 유령 직원 제거에 성공한 무랑가 사례를 언급함.

○ 주지사들, 루토 대통령의 전자조달 지침에 반발... 줄속 추진과 지방분권 훼손 우려 제기²⁴⁾

- 케냐 카운티 주지사들은 모든 카운티에서 전자정부조달(e-GP)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라는 재무부 지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저항 의사를 밝힘.
- 주지사협의회 의장 아흐메드 압둘라히는 이번 도입을 “줄속적”이고 “일관성 부족”이라고 비판하며, 시범 운영과 교육 부족, 보건 등 핵심 부문에서의 필수 서비스 차질을 문제로 지적함.
- 주지사들은 이 시스템이 카운티 정부의 헌법상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협의, 법적 정합성 확보,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루토 대통령과 존 음바디 재무장관의 지원 아래, 해당 플랫폼을 투명성 제고와 조달 부패 방지에 필수적인 도구로 옹호하며,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함.

○ 주발랜드 무장세력, 만데라 접경 지역 점령...주민과 지도자들, 정부 대응 촉구²⁵⁾

- 소말리아 주발랜드(Jubaland) 무장세력이 케냐 만데라(Mandera) 카운티 내 보더포인트 원(Border Point One) 마을에 주둔하며 농지와 지역 기반시설을 점령한 것으로 전해짐.
- 만데라 주민들은 외국 세력의 주둔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지 접근 제한, 일상생활 차질, 아동 교육 위협 등을 이유

24) <https://nation.africa/kenya/counties/governors-defy-ruto-on-e-procurement-5175418>

25) https://www.standard.co.ke/north-east/article/20152843/jubaland-fighters-take-over-mandera-as-state-house-security-boss-remain-mun#code_vigilte

로 시위를 벌였음.

-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국가 안보 수뇌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역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음.
- 일부 지역 인사들은 해당 무장세력이 키스마요 기반 주발랜드 지도부와 연계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당국은 배치가 케냐 안보 이익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러한 영향 확산은 전반적으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평가됨.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Isiolo-Wajir-Mandera Road (A13/A10) - 750km Corridor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 Transport) 산하 케냐 국가고속도로청(KeNHA)
- (도 급 사) 다수의 계약자를 통해 복수 구간(lot)으로 발주 및 시공 진행.
최근 조달 및 공사 구간에는 Isiolo-Kulamawe, Kulamawe-Modogashe, Wajir-Tarbaj, Tarbaj-Kotulo, Samatar-Wajir, Elwak-Gari (74km), Gari-Rhamu (68km) 등이 포함됨.
- (사 업 비) 전 구간 총 KES 840억~1,000억
- (편 당) 케냐 정부와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다자개발은행 참여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 방식
 - 엘왁-람후(Elwak-Rhamu) 구간: AfDB 차관 연계
 - 이시올로-쿨라마웨-모도가셰(Isiolo-Kulamawe-Modogashe) 및 와지르-코툴로(Wajir-Kotulo) 구간: 세계은행(World Bank) 차관 연계
- (사업내용)
 - 노선 길이: 약 748~749km, 구간 Isiolo -> Wajir -> Elwak -> Rhamu -> Mandera
 - 공사 패키지: 6개 이상 토목 공사 계약으로 분할
 - Isiolo-Kulamawe: 77km
 - Kulamawe-Modogashe: 113km (+ 지선 포함)
 - Wajir-Tarbaj: 55km (+ 지선 포함)
 - Tarbaj-Kotulo: 64km
 - Elwak-Gari: 74km
 - Gari-Rhamu: 68km
 - 사업 범위: 노면을 아스팔트(bitumen)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배수시설, 교량 및 박스형 암거(box culvert), 안전시설, 부대공사 포함, 국경 간 연결성 향상
 - 전략적 목표: 저개발 건조 지역(counties)을 국가 경제에 통합, 이동 시간 및 비용 절감, 안보 물류 개선, 소말리아-에티오피아와의 교역 촉진
- (추진현황)
 - 2024년 7월: 주요 구간(Isiolo-Kulamawe-Modogashe, Wajir-Elwak)에 대한 개정 이주대책계획(RAPs, Resettlement Action Plans) 및 환경·사회영향평가(ESIAs, Environmental & Social Impact Assessments) 공개, 대규모 공사 준비 단계 착수 신호
 - 2024년 10월 ~ 2025년 4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케냐 정부(GoK)가

Elwak-Rhamu (A13) 구간 공사 및 안전 자문 서비스 입찰 진행, 세계은행(WB)은 6개 공사 패키지 계약 확정

- 2025년 5월: 다자개발은행 자금 집행 개시 이후 정부가 구간 전면 착공 선언. 총사업비는 언론 기준 KES 840억~850억, 공식 발표 기준 약 KES 1,000억
- 2025년 8월: 케냐 국가고속도로청(KeNHA), 개정 일반조달계획(GPP, General Procurement Plans) 발표, 기존 749 km 사업에 신규 구성요소(교차로·부대공사 등) 추가, 효율성 및 국경 연계성 강화

○ (주요상황)

- 2025년 8월 재조정(Re-scoping): 케냐 국도청(KeNHA)이 기존 공지에 없던 추가 공사 및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 이는 회랑(corridor)의 변화하는 수요 및 자원 배분 상황을 반영함.
- 감리·감독 조달 진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및 KeNHA가 Elwak-Gari(74km), Gari-Rhamu(68km) 구간의 감리 입찰을 추진. 세계은행(WB)은 Isiolo-Kulamawe 및 Kulamawe-Modogashe 패키지를 포함한 6개 활성 계약을 확정.
- 정치적 공약: 부통령이 해당 회랑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 북부 케냐 연결성의 핵심사업(flagship)으로 격상.(단, 이는 정치적 약속이며, 차입기관의 이정표(milestone)는 아님)
- 사회·환경 준비도: Wajir-Elwak 및 Modogashe-Samatar-Wajir 구간에 대해 2024년 다수의 이주대책계획(RAPs) 및 환경·사회 영향평가(ESIAs) 개정판이 공개되어 보상 및 안전조치 시행 기반 마련.

② Nairobi City Park Rehabilitation Project²⁶⁾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정부(대통령실(State House), 문화유산부 (Ministry of Culture & Heritage), 케냐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s of Kenya))이 이스마일리 이마맷(Ismaili Imamat), 아가칸개발네트워크(Aga Khan Development Network, AKDN), 아가칸문화재단(Aga Khan Trust for Culture, AKTC)과 협력하여 추진
- **(도 급 사)** 주요 이행 파트너는 아가칸문화재단(AKTC)으로, 문화·복원 총괄 기관 역할 담당. 세부 토목·건축 시공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사 업 비)** 현재 미공개, 추후 확정 예정
- **(편 당)** 아가칸개발네트워크(AKDN) 및 아가칸문화재단(AKTC)의 자원 및 기술적 리더십과 케냐 정부 자원을 결합한 혼합·파트너십 방식의 자원 조달 모델. 2025년 시티파크(City Park) 복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배분 규모나 총액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음.
- **(사업내용)**
 - 나이로비 시티파크(약 60헥타르)를 대도시 공원으로 복원 및 재개발. 주요 내용에는 생태 복원, 토착 수종 및 숲지 복원, 산책로·놀이 및 스포츠 공간 등 공공 편의시설 개선, 카페·교육센터 등 방문객 시설, 야외극장, 전시장, 해설·식물학 요소 조성 포함
 - 시티파크 복원 사업을 나이로비 강 복원 및 도시 재생 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회랑의 오염·무단 점유·홍수 및 배수 리스크 문제 해결
 -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문화 프로그램, 장기적 재정 자립을 중점으로 추진 (이전 도시공원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AKTC 모델)
- **(추진현황)**
 - 2012년 / 2018년: 케냐 정부와 AKTC 간 나이로비 시티파크 복원 협정 체결, AKTC 주도의 초기 설계·계획·이해관계자 협의 착수
 - 2025년 3월~7월: 나이로비 강 재생 프로그램(Nairobi River Regeneration Programme) 출범. 2025년 3월 특별계획구역(Special Planning Area, SPA)으로 고시, 7월에는 종합개발계획(IDP) 공동 수립 및 SPA 지정이 보도되며, 시티파크를 포함한 인접 공공 공간과 복원을 직접 연계하는 계획 기반 마련
 - 2025년 7월 2일: 세계은행(World Bank) 지원의 기후·유역 복원 프로젝트 발표. 하천·경관 복원을 통한 시티파크 및 인근 환경 개선 효과 제공
 - 2025년 8월 26일: 대통령궁(State House)에서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이스마일리 이마맷(Ismaili Imamat, 아가칸) 간의 역사적 협력 협약 체결. 이를 통해 이마맷의 법적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협력 프레임워크 수립. 대표적 협력 사업으로

26) <https://www.youtube.com/watch?v=uqEC5pvOaT4>

나이로비 강 복원 프로그램, 시티파크 재개발, 국립박물관 개발이 명시됨. 이는 시티파크 복원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적·외교적 권한 부여를 의미하며, AKDN 보도자료와 국내 언론에 의해 보도됨.

○ (주요상황)

- 고위급 정치적 재확인 (2025년 8월): 아가칸(Aga Khan)과의 대통령실(State House) 협약 서명은 새로운 추진 동력, 외교적 승인, 그리고 격상된 파트너십 기반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AKDN 채널을 통한 기술 지원, 보존 전문성, 잠재적 자금 조달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계획적 기반 조성: 나이로비강 유역이 특별계획구역(SPA)으로 고시되고, 정부의 나이로비강 재생 프로그램이 추진됨에 따라, 시티파크 복원의 통합적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규제적·공간계획적 수단이 확보됨.
- 고용 및 복원 연계: 나이로비 전역에서 진행되는 강 재생 및 공원 복원 사업은 대규모 지역사회 참여를 동반한 고용·복원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티파크 사업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 '25.8월 기준 공개 현황: 시티파크 2025년 단계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시공사 명단, 완공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조달계획, 시공사 선정, 단계별 공사 일정 등의 세부 이행 정보는 AKTC, 케냐 국립박물관, 또는 관련 부처에서 추후 공개할 예정임

③ Angama Mara Airport Upgrade 18²⁷⁾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가고속도로청(KeNHA)
- (도 급 사) 미공개(2025년 공개경쟁입찰 예정, 낙찰자 추후 확정 예정)
- (사 업 비) KES 100 million (2024/25 회계연도 주기적 유지보수 배정 예산, 향후 다년도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 재원 추가 조달 예정)
- (편 당)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활용, KES 1,750억 규모 유동화(securitiz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부문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됨.
- (사업내용)
 - 도로 구간: 니에리-오타야-칸게마(Nyeri-Othaya-Kangema, B23) 구간 내 약 40~43km 유지보수 대상
 - 주요 정기 유지보수 작업: 포트홀 및 파손 구간 보수, 재포장·재포설(re-carpeting), 배수로 및 암거(관거) 정비, 도로 부속시설 및 안전 설비 개선
 - 조달 방식: KeNHA 지역 유지보수 입찰(국제·국내 공개 입찰, R6/289/2025), KeNHA 부속 문서에 명시된 표준 성과 기반 조항 적용
 - 목표: 도로 주행 품질 회복, 포장 수명 보전, 연중 안정적 연결성 확보를 통한 농업 및 시장 접근성 개선
- (추진현황)
 - 2025년 2월: 국가고속도로청(KeNHA)이 '니에리-오타야-칸게마(B23) 도로 정기 유지보수' 입찰 공고, 사업비 KES 1억 배정 명시
 - 2025년 중반: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 KES 1,750억 유동화로 전국 도로 사업 자금 확보, 중단·지연 프로젝트 대규모 재개 가능
 - 2025년 9월: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 재개, B23 구간에서는 정기 유지보수, 배수로 개선, 재포장 작업 진행

○ (주요상황)

- 재원 조달: 정부는 향후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 수입 약 KES 1,750억을 유동화하여 체불 공사비 정산 및 500여 개 도로 사업의 시공사 재투입
- 사업 범위 확정: KeNHA 2024/25 회계연도 조달계획 및 입찰 공고·부속 문서에 B23 구간 주기적 유지보수 명시, 사업비 1억 KES 배정
- 운영 현황: 2025년 B23 구간에서 중장비 재투입되어 재포장 및 배수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임.
- 구간 규모: 고속도로청(KeNHA) 및 도로위원회(KRB) 문서에 따르면 Nyeri - Kangema(B23) 유지보수 대상 구간 약 40~43km

27) <https://kenha.co.ke/wp-content/uploads/2025/05/KeNHA-R6-289-2025-Periodic-Maintenance-of-Nyeri-Othaya-Kangema-B23-Road-1.pdf>

④ Kenol-Sagana-Marua Highway Improvement Project²⁸⁾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국가고속도로청(KeNHA)
- (도 급 사) 구간별 도로 이중화(확장) 계약 계약에 따른 다수 시공사 참여, 각 구간별 구체적 시공사는 공개되지 않음
- (사 업 비) EUR 257.7 million;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약 69%, Africa Growing Together Fund 약 12%, 케냐 정부 약 19%로 공동 조달됨
- (편 당)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다자개발금융 차입, 케냐 정부의 자본 부담, 체불금 정산 위한 연료부담금(fuel levy) 유동화를 통해 중단되었던 구간의 공사 재개됨
- (사업내용)
 - Lot 1: Kenol-Sagana 간 48km 도로 복선화(2차로 확장), Saba Saba River Bridge, Sagana (Tana) River Bridge, Rwamuthambi Bridge 및 Makutano 분기점 포함
 - Lot 2: Sagana-Marua 간 36km 도로 복선화(2차로 확장) 공사. R.55+715 및 R.96+000 위치의 교량 2개와 Marua 분기점(83+600km 지점) 포함.
 - 추가 공사 범위: 입체교차로 건설, 도로 안전시설 설치, 청년 교육, 제도 역량 강화, 인식 제고, 가로수 식재, 모니터링 및 평가(M&E) 등 비물리적 요소 포함.
- (추진현황)
 - 2020~2022년 다자개발은행 자금으로 초기 시행 착수, 설계계획 및 착공 초기 단계 진행
 - 2025년 중반 토지 소유권 및 승계 분쟁으로 사업 진척 지연 케냐 토지위원회(NLC)가 KES 33억을 집행했으나, KES 16억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 시공사는 공정률 약 90% 달성 보고, 토지 문제 해소 구간은 2026년 1월 준공 목표
 - 2025년 7월 이후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 유동화 조치에 따라 전국 지연 사업 재개 Kenol-Sagana-Marua 회랑 구간 공사 재개

○ (주요상황)

- 재원 보강: 도로유지보수부담금(RMLF) KES 1,750억 유동화로 체불금 정산 및 시공사 재동원 추진
- 토지 분쟁 영향: 공정률 90%에도 불구하고 서류 지연과 토지권 문제로 최종 준공 지연, 케냐 토지위원회(NLC) KES 33억 집행, KES 16억은 미지급 상태
- 단계별 완료 계획: 토지 문제가 해소된 구간에서 2025년 12월까지 7 km 완공 목표, 전체 구간 최종 완공은 2026년 1월 목표
- 상대적 중요성: 본 구간은 케냐 중부 지역의 교역, 관광, 농업을 위한 핵심 연결축이자, 범아프리카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일부

28) <https://mapafrica.afdb.org/en/projects/46002-P-KE-DB0-037?>